



보도시점 2026. 8. 13.(목) 08:30 배포 2026. 8. 12.(수) 10:00

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의 애로는 품니다.

-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1차) 발표 -

- 기업의 혁신·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대도약과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조기 이행 지원
- 새로운 경제·산업환경을 반영한 규제합리화 등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
-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2차 대책 마련·발표(3분기) 추진

정부는 8.13일(목)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1차)」을 발표하였다.

지금 우리경제는 향후 성장경로를 결정할 구조적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성장기반 약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혁신이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배경하에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기업의 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대도약과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하는 한편, 현장의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업수요가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금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 그동안 경제 6단체(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6.3월~), 반도체·이차전지 등 업종별 단체(11개), 주요기업, 지방정부 건의 및 5극3특 현장방문('26.6월) 등을 통해 투자애로 조사

【 ①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가동 】

먼저, 이차전지·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신속·조기 이행을 지원한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현재 이차전지 연관 업종으로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입주 대상 업종에 **이차전지 자원재생(리사이클링)** 업종을 추가하여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할 계획('26.下)이다.

* 재자원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중간(최종) 소재 제조업

현재 건축법상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공장 건설 과정에서 신규 건축물 증설 추진시 매년 기존 건축허가 변경이 필요하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정면적 이상의 산업단지**의 경우 증설 건축물에 대해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하여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여 **약 2.5조원 규모의 투자 조기이행**을 지원한다. 또한, 반도체 분야 **상생협력을** 위해 반도체 기업 출연 등을 바탕으로 운영 중인 **실증 지원법인(예: 트리니티 팹)**이 **증여받은 재산·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상 특례 신설, '27~'31년)하여 **약 8,000억원의 투자이행**과 실증 지원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오창과학산단 내 **제조시설 증설**을 검토 중인 **바이오 기업**이 기존 제조 시설과 물리적으로 연결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기존시설과 **연접한 청주시 소유의 녹지* 용도변경**(녹지→산업용지) 및 구매를 신속히 추진('26.下)하여 **약 5,3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지원한다. 또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분양률이 저조한 **음료제조업 부지**를 기업 입주 수요가 높은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신속히 변경**('26.下)해, **약 3,500억원의 신규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 오창과학산단 녹지율은 18% 수준으로 용도변경 후에도 녹지율 기준(10~13%) 충족

【 ②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 】

첨단·신산업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새로운 경제·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도 구축한다. 근로자와 같이 작업할 필요가 있는 **협동로봇** 등 신유형 로봇이 KS·ISO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27.上)하고, 산업용 로봇의 정의도 제조·물류 서비스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동형 로봇**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비(~'27년)한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상 로봇 운전으로 인한 근로자 부상 위험 방지 등을 위해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타리 없는 작업 가능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유연한 대안**을 적용하는 **성능기반설계**를 도입(「건축법」 등 개정, ~'27년)한다. **반도체 팹(Fab)**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을 단축**(기존 7일 → 개선 3일)하는 등 첨단산업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규제를 합리화한다.

신산업·RE100 등에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에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되는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한도**를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업종특례지구 요건**을 **완화**(예: 現 토지소유자의 2/3 동의 필요 → 改 과반수 동의)한다. 기업형 첨단도시 등 국가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단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고밀·복합개발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투자 수요 등을 반영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을 **확대**(「기회발전특구 지침」 개정 추진, '27.上)하는 등 입지규제를 유연화한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금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하는 한편,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는 등 기업 혁신과 투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총괄>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4510)
		담당자	사무관 임동현 (dhlim87@korea.kr)
		담당자	사무관 김근호 (kimroot@korea.kr)
<산단입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민태 (044-201-3674)
		담당자	사무관 김효석 (khs1110@korea.kr)
<건축허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동준 (044-123-4567)
		담당자	사무관 김재훈 (jhgf@korea.kr)
<국가식품클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책임자	과 장 김재민 (044-201-2181)
		담당자	사무관 이 현 (leehun@korea.kr)
<협동로봇>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책임자	과 장 박윤경 (044-202-8850)
		담당자	사무관 민영성 (0castle@korea.kr)
<가스안전>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책임자	팀 장 정종윤 (044-203-5180)
		담당자	주무관 민지해 (alswigo@korea.kr)
<기회발전특구>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	책임자	과 장 위승복 044-203-4420
		담당자	사무관 김동영 officialkim@korea.kr